

研究論文

신민회(新民會)의 국가건설사상* - 공화제를 향하여 -

이 승 현**

I. 서론	V. 결론
II. 대내외 위기인식과 진단	<참고문헌>
III. 자주독립의 방법과 전략	<국문요약>
IV. 공화제 국가의 모색	

I. 서론

신민회는 근대의 길목에서 생성·소멸된 많은 국가건설 사상의 작은 저수지라 할 수 있다. 신민회라는 작은 저수지에 모인 사상적 자양분은 3·1운동이라는 좀 더 커다란 저수지로 흘러들어 갔고 이후 한민족의 국가건설은 공화제를 기본 정치체제로 삼게 된다. 독립협회 이후 제기된 근대국가건설 노력의 맥이 신민회로 이어지고, 신민회의 국가건설 노력은 다시 3·1운동으로 이어진 것이다. 3·1운동 이후 공화제국가 건설이 독립운동 단체의 보편적 목표로 설정되는데 신민회는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구한말의 애국계몽운동과 의병투쟁의 큰 흐름은 신민회를 통해 합류되었고 민족운동의 새로운 투쟁목표가 도출되었다. 신민회는 공화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2-073-BS1002).
 ** 국회도서관 연구관, 통일문제 전공(gadoriabba@daum.net).

방법으로 초기에는 애국계몽운동의 흐름을 이어받아 자강독립의 노선을 걸어갔다. 그러나 신민회는 결성 초기에 갖고 있었던 “독립을 위한 자강론”을 극복하고 “자강을 위한 독립론” 즉, “독립을 해야 자강할 수 있다”는 선(先)독립론을 발전시켰다.

의병투쟁의 흐름을 이어받은 신민회는 의병투쟁으로부터 두 가지를 배웠다. 하나는 의병투쟁에 나선 민을 보며 민을 재인식하는 계기를 가졌다. 다른 하나는 의병투쟁을 보면서 무장투쟁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것이다. 무장투쟁의 중요성에 대한 신민회의 인식은 나중에 독립전쟁론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자강과 무장투쟁을 함께 주장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민에 대해 새롭게 인식했다는 점에서 신민회는 애국계몽운동과 의병투쟁의 흐름을 계승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선독립론과 독립전쟁론을 발전시킴으로서 다른 단체 보다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

신민회의 국가건설 사상은 새로운 개념의 “민(民)”에서 출발한다. 신민회 이전의 민을 신민(臣民)이라고 한다면 신민회 이후의 민은 환골탈태하여 신민(新民)이 된다. 그리고 새로운 민은 주권의 담지자로서 국가건설의 주역인 것이다. 안창호는 “신민”, 신채호는 “신국민”이라고 표현했지만 이는 모두 국가주권의 소재지가 군주가 아닌 민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고 인식을 전환하는 데서 출발했다.

이 글의 연구시기는 1907년부터 1911년 9월로 한정한다. 이 기간은 신민회를 비밀리에 결성하고 강제로 해산되기까지 실질적으로 활동한 기간이다. 연구주체는 신민회가 근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구상했던 국가건설의 사상적 측면과 주요한 활동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신민회와 관련된 자료와 활동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연구 방법으로는 스프라젠스의 진단과 처방론¹⁾을 활용할 것이다.

II. 대내외 위기인식과 진단

1. 국권 상실의 위기

한국은 1905년에 외교권을 상실하였고, 1907년 한일 신협약을 거쳐 1910년에

1) 이종은, 『현대정치이론의 이해』(나남, 1991). 이 방법을 국가건설 사상 연구에 적용한 예는 이종은, 「유길준의 국가건설사상」, 『한국정치학회보』, 38집 1호(2004)가 있다.

군주의 주권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상실한 군주의 주권을 대한의 국민이 계승하였다고 보는 주권불멸설에 따르면 임시정부가 수립되기까지 논리적으로 주권의 공백은 없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신민회를 결성한 시점인 1907년은 아직 주권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신민회를 중심으로 꺼져가는 국권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이 활발했던 시기였다. 많은 사람들은 이미 1905년에 국권상실의 위기를 인식하고 있었다. 당시 여론을 주도하던 언론 중의 하나였던 《대한매일신보》는 1905년 9월 27일자에서 국력이 허약해져서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일본의 침략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적고 있다. 국력이 허약해진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신교육의 결핍, 애국심의 결핍, 실업의 결핍, 단체결성의 미약) 등이다. 많은 선각자들은 민족의 앞날에 대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이로부터 2년 후 좀더 심화된 위기상황을 목도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비밀 결사로 신민회가 발족되기에 이른다. 신민회의 위기인식은 그 발기 취지서에 잘 나타나 있다. 신민회는 일본이 외교권을 박탈하여 외치를 좌우하고 있고, 외국인이 차관으로 앉아 실질적인 내정을 좌우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국정 상황을 비통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각종 이권과 영토의 할양이 이루어지면서 난국이 심화되고 있었다.³⁾

신민회는 주권상실의 위기를 인식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처방을 찾기 위해 현실진단을 시도한다. 신민회는 당시 국권 상실의 위기까지 몰리게 된 원인을 “민권의 결여에서 찾았다. 민권이 없기에 나라는 아래로 일반 국민들은 몽매하고 애국심이 없으며 위로 지도층은 부패했다고 보았다. 신민회는 나라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한 출발점을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는데서 찾았으며 이는 신민운동으로 발전했다.

신민회의 대표적 지도자 중의 한 사람인 안창호의 인식 속에서 위와 같은 진단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그는 국권이 상실될 위기에 처한 원인을 전제군주제와 같은 낡은 제도와 의식에서 찾았다.⁴⁾ 군주주권체제는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극복 대상으로서 보다 빨리 국민주권에 바탕을 둔 공화체제를 수립해야 했으나 하지 못

2) 김용미, 「신민회의 국권회복운동과 정치사상」, 연세대 석사학위논문(1997), 38쪽.

3) 국사편찬위원회, 「대한신민회취지서」, 『한국독립운동사』(국사편찬위원회, 1966), 1025~1026쪽.

4) 박만규, 「한말 안창호의 근대국민 형성론과 그 성격」, 『전남사학』, 11집(1997), 437쪽.

하였기 때문에 국권 상실의 위기에 처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러한 인식전환 과정에서 민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기존의 구민(舊民)을 신민(新民)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당위를 찾아낸 것이다. 국권상실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새롭게 하는데서 시작해야 했고 이 운동이 발전하면 결국 공화제에 기반 한 새로운 문명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는 논리로 발전하였다. 신민회는 “한국의 부패한 사상과 습관을 혁신하여 국민을 유신하며…유신한 국민이 통일 연합하여 유신한 자유문명국을 성립”한다는 활동목적을 갖고 있었다.

안창호와 더불어 신민회의 노선을 이끌던 주요한 인물 중 한사람으로 신채호를 빼 놓을 수 없다. 그는 신민 사상을 더욱 발전시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20세기 신국민상을 제시하였다.⁵⁾ 신채호는 새롭게 해야 할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를 지적하였다. 국민을 새롭게 하는 것만이 국권상실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보았다. 안창호와 신채호의 인식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주권 사상을 확립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것이 위기 극복의 유일한 길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신민회가 이상적인 국가상으로 국민주권에 바탕을 둔 공화제를 설정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2. 국민주권 의식의 고취

신민회는 허물어져가는 국가 주권을 지켜내는 방법의 하나로 애국심을 고취하려 했다. 신민회는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국민주권의 실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군주주권을 해체하고 국민주권을 확립해야 애국심이 고취되고 이를 기반으로 국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인식 구조인 것이다. 따라서 국권을 회복한 이후의 정치체제는 군주국가가 아니라 공화제를 이상국가로 설정하였다.

신민회는 국민주권이 확립되어야 내 나라라는 인식이 명확해지고 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도 생긴다고 보았다. 군주의 나라는 군주의 나라일 뿐 나의 나라는 아닌 것이다. 신민회의 논리는 군주의 나라에서는 충군의 단계에 머물 수밖에 없지만 국민주권 사상에 의해 국민의 나라, 즉 국민 개개인이 내 나라라는 인식을

5) 신채호, 「20세기 新國民」, 《대한매일신보》, 1910년 2월 22일~3월 3일자.

갖게 되면 애국의 단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민회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애국심이 생겨날 때 국권회복도 가능하다는 희망을 갖고 국민주권 의식을 고취하려 했다. 그러나 국민주권 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신민회의 출범초기 애국심에 대한 인식은 통용장정에 잘 나타나 있다. 신민회는 통용장정 제2절 8조에서 “해내해외를 막론하고 애국성이 유한 동포로써 일치단결할 사”를 신민회의 주요한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애국심 있는 동포들을 모아 일치단결하여 국권 수호를 위해 노력하자는 단순한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신민회는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은 사람들의 애국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을 뿐이라고 보았다.⁶⁾ 애국심이 있으면 나라는 망하지 않으며, 망한 나라도 애국심을 잃지 않고 애국심을 고취하면 나라를 되살릴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망국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논리의 연속선 위에 형식상 국가와 정신상 국가의 개념이 등장한다. 대한제국이 국권을 상실하게 되면서 신민회 후기에는 역사의식, 국가의식, 애국심의 외적 발현태로서 국가 또는 정부는 무너질 수 있지만 국가의식, 역사의식이 살아 있는 한 언제든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논리로 발전해 나갔다.

이러한 논리 발전과정에서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사상가는 신채호였다. 그는 《대한매일신보》 1909년 4월 29일자에서 국가를 정신상 국가와 형식상 국가로 나누어 인식하는 글을 실었다. 신채호는 당시 군주정체의 형식을 가진 대한제국의 멸망해 가는 현실을 부정 내지는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런 논리를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현실 속에서 형식상 국가는 멸망해 가고 있지만 정신상 국가를 보전함으로써 이후 새로운 형식을 가진 국가를 재창출할 수 있다는 논리인 것이다.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연속적으로 인식할 때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망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정신상 국가를 보전하는 원동력은 바로 신국민의 애국심이었고 애국심의 원천은 국민주권의식이었다.

신민회는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많은 실천운동을 하였다. 대표적인 시도는 학교 설립이었다. 많은 학교를 설립하고 그 학교를 통해 애국심을 고취하려 했던 것인데, 안창호가 설립한 대성학교, 이동휘의 보창학교, 이승훈의 오산학교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6)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개정판 단재 신채호 전집』(형설출판사, 1987), 141쪽.

학교 교육을 통해 신민회가 주안점을 둔 것은 국가의식, 역사의식의 확립이었다. 신민회는 애국심에 기반 한 국가의식, 역사의식, 주권의식이 살아 있으면 기회가 왔을 때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 얼마든지 독립 국가를 복원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신민회는 단순히 학교 수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무엇을 위해 학교를 세울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다른 단체와는 구별되는 점이 있었다. 당시 개인과 가문의 명예를 위해 또는 영리를 위해 학교를 세운 사례도 많이 있었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신민회의 학교설립운동은 더욱 돋보이는 것이다.

신민회의 세 지도자인 윤치호, 안창호, 신채호는 애국심 고취에 대해 모두 기본적인 방향에는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실현방법에 있어서는 자신의 사상적 입장에 따라 분화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신채호는 애국심 고취를 위해 신문 논설을 통한 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펼친 인물이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의 한계를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당시 계몽운동의 일환으로 활발히 전개되던 강연회를 비판하면서 강연회의 격정적인 감정표출로는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논설활동을 비판하면서 논객이 아무리 강개한 글을 써도 독자의 울분은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애국심을 고취하지는 못한다고 보았다.

그는 강연회나 신문논설을 통한 계몽운동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진정한 애국심은 실력양성을 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⁷⁾ 그리고 실력양성의 방법은 타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력에 의한 것을 뜻했다. 그리고 경제적 실력양성이 독립을 위한 전제가 아니라 경제적 실력양성의 전제가 독립이라는 점도 명확히 인식하게 된다. 신민회는 국민주권의식에 바탕을 두고 애국심을 고취하는데서 망국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솟아나고 새로운 국가건설이 시작된다고 본 것이다.

III. 자주독립의 방법과 전략

신민회는 국가건설을 위해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자력적 실력배양론, 선독

7) 위의 책, 133쪽.

립론 그리고 독립전쟁론이다. 자력으로 실력을 배양해 보려 했던 신민회는 현실의 높은 장벽을 넘지 못하고 좌절하게 되며, 선실력배양 후독립의 논리는 선독립 후 실력배양으로 변화한다. 실력배양을 통한 자주독립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권을 상실하자 무장투쟁을 통한 즉각적인 독립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신민회는 실력양성과 더불어 기회의 적극적인 활용도 강조하였다. 양자를 모두 강조했지만, 양자의 선후에 대해서는 명확한 인식을 하고 있었다. 신민회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실력을 양성하고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논리를 갖고 있다. 기회는 언젠가 인지 확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반드시 올 것인데 이때를 대비해 실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신민회의 기관지 《대한매일신보》는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힌바 있다. 1910년 1월 13일자에서 기회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 좋은 기회가 온다면 매우 좋겠지만 일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력이라는 요지의 글을 게재했다. 실력이 있을 때 찾아온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력과 기회가 겹비될 때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논리는 독립과 국가건설의 기회는 반드시 오는데 그 때를 대비해 실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확신이 깔린 것이다.

그러면 실력과 정신 중에는 어느 것을 더 강조했을까? 신민회는 단연코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정신만 있고 실력이 없으면 혹 성공할 길이 있을 수 있지만 실력은 있으나 정신이 없으면 멸망을 면할 수 없다.”⁸⁾ 애국정신과 실력을 함께 강조하는 겸실력주의는 독립우선론, 정신분발론으로 전개된다. 이러한 논리 전개과정에서 신채호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가건설을 위한 실력배양의 논리를 자력적 실력배양과 선독립론, 그리고 독립전쟁 준비론으로 나누어 분석할 것이다.

1. 자력적 실력배양론의 좌절과 선독립론

신민회는 실력배양을 강조하고, 실력을 배양하기 위한 실천운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실력배양을 둘러싸고는 두 가지 입장이 경쟁적으로 제시되고 있었다. 하나는 선진 외국의 도움을 받아 실력을 배양하자는 타력적 실력배양론이다. 다른 하나는

8) 《대한매일신보》, 1909년 4월 1일자.

선진 외국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실력을 길러야 한다는 자력적 실력배양론이다.

물론 신민회는 외국의 도움 없는 스스로의 실력배양, 특히 국민의 실력, 즉 민력을 배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일본의 보호 또는 원조아래 실력을 기르자는 논리를 제압하는 논리다. 당시 실력배양을 주장한 단체들은 많이 있었으며, 특히 일본의 보호 또는 원조아래 실력을 양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비해 신민회는 자신에 입각한 자력적 실력배양을 주장했다.⁹⁾ 자력적으로 민의 실력을 배양하자는 신민회의 논리는 민에 대한 신뢰에 바탕을 둔 것으로 신민회가 지향하는 공화제와 일맥상통한다.

신민회의 기관지 《대한매일신보》는 1907년 10월 1일자에서 “대한의 독립은 대한인의 자력으로 획득하고 자력으로 보수하여야 완전독립”이라고 주장했고, 10월 21일자에서는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타국이 원조하는 것은 심히 위태하고 또 자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타국의 원조가 유익치 않을 뿐 아니라 반대로 매우 해가 된다”는 견해를 주장했다.

국민의 실력을 스스로 길러 독립을 쟁취하자는 논리인데 이는 민주주의 사상과 접목되는 부분이 있다. 신민회가 사용하는 실력은 군주의 실력이 아니라 국민의 실력을 뜻하는 것이다. 즉 나라의 흥망성쇠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이 실력양성을 할 수 있으면 나라도 사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나라도 죽는 것이다. 따라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새롭게 할 때, 쓰러져 가는 나라도 바로 세우고 멸망한 나라도 재생할 수 있는 것이다. 자력적 실력양성론이 국민을 주체로 본 것은 이상적인 정치체제로서 공화제를 설정한 것보다 논리적으로 통하는 것이다.

신민회가 자력적 실력배양론을 발전시켜 타력적 실력배양론을 극복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실력배양을 하는 것조차도 독립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아직 좀더 많은 시간과 뼈저린 경험이 필요했다. 자력적 실력배양론은 현실 속에서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되며 이러한 경험들은 선독립론이 나올 수 있는 자양분이 된다.

신민회의 실력양성론은 경제부문에서 철저한 좌절을 겪었다. 신민회 통용장정

9) 박찬승, 『한국근대정치사상사연구』(역사비평사, 1992), 29~30쪽.

제2절 10조는 “실력을 확장하여 국체를 완전케 할 사”를 규정하고 있다. 신민회는 같은 장정 제2절 6조에서 “실업가에 권고하여 영업방침을 지도할 사”를 규정하였고, 7조에서는 “본회에 합자로 실업장을 설하여 실업계의 모범을 작할 사”를 규정하고 있다.

이런 장정의 내용을 볼 때, 신민회의 목적에 동의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실물경제와 관련된 계층이었다는 점이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일제가 조작했던 105인 사건에 연루되어 123명이 기소된바 있는데 이중 상공업자가 50명을 차지하였다.¹⁰⁾ 신민회는 안창호를 중심으로 일본상품 불매운동, 민족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상권수호운동 등을 전개하기도 했다. 또한 신민회는 민족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관서자문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신민회의 산업진흥운동은 교육운동만큼 성공하지는 못했다. 애국심과 열정만으로 일본의 거대자본을 극복하기는 힘이 모자랐다. 이는 다시금 경제건설을 통한 국부증대가 국권회복과 독립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하는 경험이 되기도 했다.

신민회의 경제부문 운동은 실패했지만 그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첫째, 전통적인 사농공상의 가치관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합자형식의 기업형태와 근대적 경영방식을 제시하여 근대기업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¹¹⁾

신민회는 국민경제의식개혁운동을 추진하여 외국 자본주의의 경제침략에 대응하고자 했다. 국민의 의식을 개혁함으로써 경제적 독립을 확보하고자 했다. 예컨대 전통 유교사회의 상공업 경시사상을 극복하는 의식개혁을 통해 상공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상공업을 장려하여 국부를 증대하고자 했다. 국부의 증대는 곧 국가의 실력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신민회가 경제실력론을 주장한 근본적인 이유는 정치적 독립은 경제자립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사상에서 출발한다.

신민회는 경제실력론을 통해 당시 물밀 듯이 밀려오는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응하고자 했다. 즉, 산업을 진흥하는 것이 곧 애국이고 구국이라는 논리를 세운 것이다. 경제실력론은 실업구국론과 연결되었다.

신민회의 경제실력론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실마리는 국가건설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경제적으로 실력을 길러야 독립을 회복할 수 있다는

10) 윤경로, 『105인 사건과 신민회 연구』(일지사, 1990), 79쪽.

11) 김청수, 「신민회 연구: 조직과 활동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85), 53쪽.

논리는 대개 사회진화론의 경쟁논리에 입각한 지식인 대부분이 생각하고 있었던 논리였다. 그러나 신민회의 경제실력론은 이것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1909년 6월 18일자 《대한매일신보》를 보면 독립국가의 전제조건으로 실력과 부강을 내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여 자강론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즉 경제적, 정치적으로 완벽한 국력을 갖고 독립한 나라만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 반대가 진실이라는 인식이다. 기존의 대부분의 자강단체들이 실력을 길러야 독립을 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 출발했다. 선실력 양성론은 당시 현실을 고려할 때 부분적으로는 합리성을 지닌 것이었지만 사회개혁을 통한 실력 양성은 국권의 유지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강론자들은 실력양성만을 주장함으로써 사실상 일본의 국권장악과 식민정책을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¹²⁾

그러나 신민회에 가담한 신채호는 이를 극복하고 독립을 해야 경제적으로도 부강해 질 수 있다는 논리를 주장한 것이다. 신민회는 이처럼 선독립, 선국가건설론의 입장에서 경제문제에도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자강단체와는 다른 면을 보여주었다.

신민회가 자강론으로부터 선독립론으로 입장을 바꾸어 가는 과정은 신민회를 주도한 3인의 노선 변화와 중첩된다. 윤치호, 안창호, 그리고 신채호 세 사람은 보기에 따라서는 상호간의 공통분모를 찾기 어려워 보일 정도로 다른 입장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세 사람 사이에는 공통분모가 있으며 단지 이를 실천하는 방도를 달리하는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윤치호가 명백한 선실력양성 후독립의 입장이라면 안창호는 실력양성과 독립의 병행의 입장에 가깝고 신채호는 선독립 후실력양성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안창호의 경우 선실력양성 후독립의 입장으로 분류하는 견해도 있다.¹³⁾ 신민회는 초기에는 선실력배양 후독립론의 입장을 견지하였다. 1908년경까지는 대체로 선실력양성론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1909년 무렵부터는 선실력양성론을 비판하며 독립과 실력배양의 병행을 주장하게 되었고, 마침내 이를 완전히 극복하여 선독립

12) 김명구, 「한말·일제강점 초기 신채호의 민족주의 사상」, 『단체 신채호의 현대적 조명』(도서출판 다운샘, 2003), 194쪽.

13) 박찬승, 앞의 책, 105쪽.

후실력배양론의 입장으로 변화해 갔다.¹⁴⁾ 독립이 있어야 실력도 양성될 수 있다는 선독립론이 신채호 이후에 신민회의 기본 입장이 된 것이다.

2. 독립전쟁 준비론

신민회는 자력적 실력배양론에 따라 실천운동을 전개하였으나 목표하는 바를 달성하지 못하고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이에 새로운 방략을 구상하게 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독립전쟁론이다. 신민회가 무장투쟁을 통해 국권을 회복하겠다는 노선을 견지된 것은 의병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다. 신민회는 의병투쟁을 지지함으로써 과거 의병투쟁을 지지하지 않았던 독립협회와는 다른 입장을 견지했다.¹⁵⁾ 신민회가 의병운동을 지지한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첫째는 국민에 대해 신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독립협회는 민에 대한 신뢰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약했기 때문에 의병운동을 비판하였지만 신민회 단계에서는 이를 극복한 것이다. 둘째는 신민회의 독립전쟁론의 뿌리가 깊다는 실마리이기도 하다.

신민회에서 독립전쟁을 주장한 사람으로는 신채호를 대표적인 논자로 꼽는다. 그러나 안창호의 경우도 독립전쟁을 주장한 단초들이 밝혀진 바 있다. 안창호는 일본을 상대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전쟁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즉각적인 개전을 주장하는 즉전론은 아니었고 전쟁을 치밀하게 준비하여 결정적인 시기가 왔을 때 전쟁을 통해 국권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안창호는 “실력을 양성함에는 상당한 세월을 요하므로 그 실력이 생긴 때에 무력으로써 일을 도모하든가 혹은 정치적으로 일을 도모하든가를 정할 심산”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¹⁶⁾ 이처럼 안창호의 독립전쟁 준비론은 일본과의 전쟁에 대비한 실력준비였고 일제가 다른 제국주의 강대국과 충돌할 때 전쟁을 개시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었다.¹⁷⁾ 안창호의 논리는 철저하게 선준비 후전쟁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신채호는 좀더 강도 높은 무장투쟁을 통한 독립전쟁론을 강력하게

14) 위의 책, 91쪽.

15) 《대한매일신보》, 1907년 8월 18일자.

16) 도산기념사업회, 『속 도산안창호』(도산기념사업회, 1954), 90쪽.

17) 박만규, 앞의 논문, 441쪽.

주장했다. 독립전쟁 준비론은 국권상실 이후 다른 양상으로 전개해 나갔다. 장기적인 실력양성과 같은 준비에 방점이 찍힌 것이 아니라 독립전쟁에 방점이 찍히면서 해외 독립군 기지 건설과 무관학교 설립으로 발전하였다. 독립전쟁론은 1909년 봄에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¹⁸⁾ 이때 외국의 적당한 지역에서 독립군 간부를 양성하기로 결정했다. 신민회는 1910년 3월 서울회의와 4월 청도회의를 거치면서 구체적인 독립전쟁을 준비하였다. 1910년 3월 간부회의를 통해 독립전쟁론을 국권회복의 최고전략으로 채택하였고, 국외 독립운동기지 건설사업안을 확정하였다.

독립운동기지 건설사업안은 크게 일곱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장백산 부근과 같이 일제의 통치력이 미치지 않고 국내 진입이 유리한 곳을 독립운동기지 후보지로 결정하였다. 둘째, 선정된 최적의 후보지에 일정한 면적을 구입 확보한다. 셋째, 신한민촌을 건설하고 경제적 자립을 도모한다. 넷째, 신한민촌에 다수의 애국청년을 보낸다. 다섯째, 신한민촌에 무관학교를 세우고 독립군을 양성한다. 여섯째, 중국의 북경무관학교에 국내의 애국청년을 입학시키고 간부로 육성하여 독립군 전력으로 확충한다. 일곱째, 양성한 독립군이 국내 진공하고 신민회가 호응하여 일제를 물리치고 국권을 회복한다.

1910년 4월 청도회의에서는 무관학교를 세우고, 교관을 양성하며, 전문기술자를 확보하는 내용을 결의하였으며 신채호는 무관학교 교관으로 결정되어 블라디보스토크로 떠났다. 그러나 1910년 8월 망국을 맞이하면서 이러한 계획들은 실천에 옮겨지지 못하고 일단 좌절하였다. 그러나 1910년 12월에는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위한 선발대가 서간도로 이주하는데 성공하였다. 1911년 1월과 9월에 신민회에 대한 탄압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간도 이주는 계속되어 신민회의 독립전쟁론에 근거한 교육기관과 항일단체가 속속 결성되었다.

신민회가 독립전쟁을 통해 국권을 회복하는데 까지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독립전쟁론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며 이를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¹⁹⁾ 첫째, 간도에 독립운동기지와 무관학교를 설립함으로써 무장독립군활동의 모체가 되었다. 둘째, 무장투쟁을 지도할 새로운 지도사상을 확립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 셋째, 독립전쟁론은 1910년 이후 독립운동의 골격이 되었으며 1919

18) 원의상, 「신흥무관학교」, 《신동아》, 1969년 6월호, 236쪽.

19) 김청수, 앞의 논문, 66-67쪽.

년 이후 일반화되었다. 넷째, 국외에서의 독립운동이 국내의 독립운동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

IV. 공화제 국가의 모색

신민회를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 중의 하나는 근대적 민족국가의 정치체제로 공화제를 제시했다는 점이다. 신민회는 애국심을 고취하여 국권을 회복하고, 공화제 국가를 건설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었다. 신민회는 공화제라는 이상적인 국가상을 명확하게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다른 단체와 구별할 수 있다. 신민회의 공화제 구상은 3·1운동과 임시정부를 거치면서 면면히 이어진 결과 1945년 광복 이후 남북한에서 공히 실체를 갖는 정치체제로 실현되기에 이른다.

1. 이상적 국가상

신민회는 이상적 국가로 공화제를 구상하고 있었고 그 밑바탕에는 명확한 주권재민의식이 깔려있었다. 여기서는 공화제와 국민주권에 대한 신민회의 인식정도를 추적해 볼 것이다.

신민회는 “大韓新民會通用章程”에 적고 있듯이 자유문명국 수립을 최대의 활동 목표로 설정했다.²⁰⁾ 신민회의 자유문명국은 군주 1인만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라 다수의 국민이 자유로운 문명의 나라이다. 신민회는, 대만을 혁신하기 위해 발기했는데, 부패한 사상과 관습을 혁신함으로써 국민을 새롭게 하고, 교육, 산업을 개량하여 경제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국민이 통일하고 연합함으로써 자유문명국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

이 자유문명국의 정체는 무엇일까? 신민회가 말하는 자유문명국은 바로 공화제를 정체로 한 국가이다. 신민회는 “유신한 자유문명국을 성립한다”고 했는데 그 속뜻은 한국이 공화정체의 독립국이 되겠다는 것이다.²¹⁾ 당시 신민회의 활동을 조

2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국사편찬위원회, 1965), 1028쪽.

21) 위의 책, 1024쪽.

사하여 보고한 일본 사람은 “深意는 韓國으로 하여금 列國保護下에 共和政體의 獨立國으로 함에 目的이 있다”라고 적고 있다. 일인의 눈에도 신민회의 활동목적이 공화정체의 독립국가 건설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다. 그런데 일인의 보고에는 “열국보호하”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서 좀더 주의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 일본은 공화제가 되었던 군주제가 되었던 “열국보호,”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본의 보호아래에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민회의 주요한 지도자 중 한 사람인 신채호는 “20세기 신국민”에서 좀더 명시적으로 공화제에 대한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전제봉건의 낡고 고루함이 사라지고 입헌공화의 복음이 두루 퍼져, 국가는 인민의 낙원이 되며, 인민은 국가의 주인”이 되는 세상을 문명의 진보로 적고 있다. 즉 입헌공화국을 이상적인 국가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신채호는 전제군주제를 타도하고 봉건제도를 타파함으로써 인민이 주인되는 공화제 국가를 건설할 수 있고, 인민은 공화제 국가 안에서 낙원을 찾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신채호의 주장은 정치적으로는 국민이 주인되는 공화주의, 경제적으로는 국민경제가 바탕을 이루고 있는 자본주의²²⁾를 뜻하는 것이었다. 안창호와 신채호의 사고에서 드러났듯이 신민회는 국민주권 사상에 입각한 새로운 나라, 즉 입헌공화제의 민주국가를 이상적인 국가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근대국가 건설사상사를 추적해 보면, 신민회에 와서야 비로소 공화제 수립을 이상적인 대안으로 공식화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신민회는 왜 공화제 국가를 건설하고자 했을까? 국민이 주인이 되는 공화제 국가만이 국가주권을 수호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주권의 담지자로 국민을 명확히 인식했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공화제 국가”를 건설하려 했던 것이다.

신민회 단계에 와서야 국민주권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자리를 잡게 되기 때문에 공화제가 이상적인 국가상으로 제시된 것이다. 따라서 국민주권에 대한 신민회의 인식을 추적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해진다. 그 실마리는 안창호의 발언과 《대한매일신보》의 글에서 찾을 수 있다. 안창호는 공개강연에서 군주주권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²³⁾ 국가는 국왕 한사람의 소유가 아니라고 말한 것이다. 이는 당시 상황에서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공개적으로 언

22) 김용미, 앞의 논문, 48쪽.

23) 박만규, 앞의 논문, 436쪽.

급한 것이다. 국가가 국왕의 소유가 아니라면 누구의 소유일까? 당연히 국민의 소유라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었다.

1910년 무렵의 신민회는 국민과 주권의 불가분성을 강조하는 등 좀더 명확한 국민주권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신민회는 “국민이 있어야 주권이 있고 주권을 잃으면 국민의 권리도 잃게 되니 국민과 주권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국가란 민중의 단체요 주권은 민중의 힘을 합친 것이니 주권을 잃은 국민은 참다운 국민이 아니다”²⁴⁾라고 인식한 것이다.

국권 상실의 경험과 국권 상실 이후 의병운동을 통한 민의 대응이라는 현실도 신민회가 군주주권이 아닌 국민주권을 기본 사상으로 삼게 되는 과정에 일정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군주주권 체제 아래서는 황제가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황제를 위협하여 주권을 빼앗아 갈 수 있었다. 또한 고종의 강제 퇴위 이후 전개된 후기 의병운동을 보면서 “민”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되었다.²⁵⁾ 주권의 형식적 담지자로서 황제의 무능과 주권의 실질적 담지자로서 민의 역할과 능력에 대해 재인식을 하게 된 것이다.

군주주권을 부정하고 국민주권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민주권 사상을 대안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다. 국가와 주권을 지키는 것은 군주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임을 인식하는 것이 신민회가 생각하는 국민주권이고, 신민회가 지향한 국가체제는 군주제가 아닌 공화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

사실 신민회 출범을 전후한 시기에는 입헌군주제와 입헌공화제가 전제군주제의 대안으로 고려되었다.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많은 지도자들은 입헌군주제를 현실성 있는 국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안창호는 입헌군주제가 아닌 입헌공화제를 전제군주제의 대안으로 제시하였고 그 근본 사상으로 국민주권 사상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논리적으로는 설득력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았던 안창호의 주장이 현실적인 힘을 얻게 된 계기는 고종의 퇴위였다. 실존인물로서 국왕이 존재하는 상황과 존재하지 않는 상황은 군주제 폐지를 전제로 한 공화제 건설론에는

24) 《대한매일신보》, 1910년 6월 19일자.

25) 윤대원, 「한말 일제 초기 정체론의 논의 과정과 민주공화제의 수용」, 『중국현대사연구』, 제21집 (2001), 66쪽.

현격하게 차이가 있다.

일제에 의한 강제 퇴위 이후 군주제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가 가능했다. 첫째는 외세의 간섭에 분노하며 강제 퇴위된 군주를 복권시키려는 입장이다. 복벽주의 내지 보황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흐름은 1910년 유인석, 이상설 등이 사망할 때까지도 여전히 유지되었다. 둘째는 역사발전의 장애물로 간주된 국왕의 퇴위를 기정사실화하고 공화제로 나가려는 입장이다. 신민회는 두 번째 입장에서 있었다. 신민회의 힘에 의한 것은 아니었지만 고종의 퇴위는 주권 상실의 위기이면서 동시에 공화제 건설의 기회이기도 했다.

신민회는 공화제 국기를 건설하기 위한 방법론을 두 단계로 제시하였다. 신민회는 국권을 상실하기 전까지는 유신운동을 통해 국권을 지키고 공화제 국기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신민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권을 상실한 다음에는 독립전쟁을 통해 국권을 회복하고 공화제 국기를 건설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국권을 상실한 이후에는 독립전쟁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자임하게 된다.

신민회가 채택했던 공화주의 노선은 신민회 해산으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독립협회 이래 두 번째 좌절이었다. 그러나 이상적인 국가상으로서 공화주의는 이상설의 신한혁명당운동이 실패한 뒤, 1917년 등장하는 대동단결선언으로 계승되었다. 조소앙이 기초했고 신민회의 신채호도 지지했던 「대동단결선언」에서 공화주의는 한민족의 공식적인 독립투쟁 노선으로 천명되기에 이른다.²⁶⁾ 이 흐름은 1919년 3·1운동으로 이어졌고, 이후 독립운동 단체의 보편적인 목표로 공화제가 채택되었다. 독립운동을 거쳐 광복을 맞이하고 서양의 정치체제인 공화제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로 안착하기에 이른다. 대한민국 제헌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맥락을 되짚어 보면 독립협회로부터 시작한 공화제의 수용과정²⁷⁾이 신민회라는 징검다리를 거쳐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로 자리 잡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6) 김명구, 앞의 논문, 198~202쪽.

27) 최형익, 「한국에서 근대 민주주의의 기원」, 『정신문화연구』, 제27권 3호(2004), 3쪽.

2. 신민신국론

신민회를 발기하면서 안창호는 두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하나는 한민족을 근대 국민으로 발전시키려는 신민운동이었고 다른 하나는 한반도에 자주독립의 근대국가를 건설하려는 신국운동이었다.²⁸⁾ 신민은 곧 주권을 가진 국민이고 신국은 국민 주권에 입각한 자유문명국가로서 민주공화제 국가인 것이다. 신민회의 국가건설 노선은 신민 신국론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 본 대로 신국은 공화제 국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신민회가 생각하는 신민은 무엇일까? 신민회가 사용한 “신민”은 양계초의 신민설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특히 사회진화론적 진보 사상을 수용한 것이다.²⁹⁾ 신민은 구민을 전제로 하며 민족성 개조를 염두에 둔 것이다. 구민은 군주제 아래의 신민(臣民)을 뜻하는 것이고 이 신민(臣民)을 신민(新民)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민족성을 바꾸어야 했다. 신민회가 생각한 민족성 개조는 자력적 개조로서 일본에 동화되는 것을 전제로 한 민족성 개조와는 차원이 다르다. 신민회는 개인이 스스로를 개조해야 한다고 보았다. 일본이 말하는 민족 개조와 다른 점은 이 민족 개조, 개인 개조가 타인, 타국과 같은 타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에 의한 자기 개조여야 한다는 점이다. 개조의 핵심은 주권의 담지자로서 국민주권 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안창호는 “한국민족 전체를 개조하려면 그 부분의 각 개인을 개조하여야 하겠고, 각 개인을 다른 사람이 개조하여 줄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가 자기를 개조하여야 한다”고 인식했다.³⁰⁾ 신민이 되기 위해 민족성을 개조해야 했는데, 그 범주는 사상, 교육, 도덕, 문화, 실업, 정치, 사회 등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있다. 유신된 시민들이 연합 단결하여 새사회, 새나라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신민회는 신민이 자신의 과정을 거쳐 새롭게 탄생한 유신된 국민이라고 했다. 신민회는 신민이 과거 스스로 새롭게 태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현재 나쁜 결과를 얻게 되었지만 나라를 위하는 길은 역시 스스로 새로워지는 것뿐이라고 밝히고 있다.³¹⁾ 타력에 의한

28) 박만규, 앞의 논문, 429쪽, 435쪽, 437쪽.

29) 조동걸, 『한국민족주의의 성립과 독립운동사연구』(지식산업사, 1989), 85쪽.

30) 주요한, 『安島山 全書』(三中堂, 1963), 6쪽.

새나라 새국민 운동이 아니라 자력에 의한 새나라 새국민 운동을 주장한 것이다.

신민에 대해서 신채호도 언급한 바 있다. 신채호가 처음부터 신민을 강조한 것은 아니었다. 1908년 8월 이전의 신채호는 신민 또는 국민 보다는 영웅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당시 지식인들이 대개 그러했듯이 부국강병을 통해 제국주의 국가로 성장하는 것을 최상의 목표로 설정했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 보다는 국권을 보전하기 위한 애국심을 강조했고, 민중은 단지 계몽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지도할 영웅의 존재가 필요했다.³²⁾

그러나 1908년 8월 발표한 글을 통해 영웅사관을 극복하고 국민의 잠재력에 주목하는 인식의 전환을 보여준다. 국민에 대해 이렇게 전환된 인식은 20세기 신국민을 발표하면서 절정에 이른다. 신채호는 신국민론을 제기하면서 “신국민은 전제군주 아래서의 신민이 아닌 국민주권 체제 아래서의 국민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신국민의 조건으로 평등, 자유, 정의 등의 도덕, 상무교육, 국민경제, 국민적 종교”를 지적하고 있다.³³⁾

신채호는 어떤 계기로 영웅사관을 극복하고 인식을 전환했을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계기는 당시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의병운동에서 찾을 수 있다. 1907년 8월 고종의 강제폐위와 군대해산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의병운동이 확대발전하였다. 1908년~1909년의 2년 동안은 후기 의병운동이 최고절정에 이르렀다. 당시 의병장의 격문 등에 나타난 민에 대한 인식은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기 의병운동을 계기로 민을 국가의 실체, 국가와 민족의 구성인자, 또는 실질적 주권자로서 인식해 가는 단초들이 나타났다.³⁴⁾ 후기 의병운동을 목격하면서 신채호도 더 이상 영웅의 등장을 기다리기 보다는 새롭게 탄생한 민에 주목하고 신국민의 탄생을 염원하게 된 것이다.

신민회는 어떻게 신민운동을 전개했을까? 신민회는 민주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국가는 국민의 것이며 국가의 부강은 국가를 이루고 있는 국민의 부강에서 나온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들의 실력양성은 신민(新民)의 힘, 즉 시민의 힘을 기르는 것을 뜻

31)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1966), 1026~1027쪽.

32) 김도형, 『대한제국기의 정치사상 연구』(지식산업사, 1994), 116~123쪽.

33) 《대한매일신보》, 1910년 2월 22일자.

34) 윤대원, 앞의 논문, 68쪽.

했다. 이 신민은 다름 아닌 시민을 뜻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신민회의 주장은 시민형성을 통해 독립을 쟁취하고 새로운 공화국을 건설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신민회는 신민운동의 일환으로 국가의식을 함양하고 국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사업에 많은 노력을 쏟았다. 신민회는 통용장정 제2절 3조와 4조에 교육에 관한 과제를 규정하고 있었다. 3조에서는 “정미한 학교를 건설하여 인재를 양성할 사”를 규정하였고, 4조에서는 “각처 학교의 교육방침을 지도할 사”를 규정하였다.

이 장정에 따라 교육 사업을 열정과 헌신으로 추진하였다. 안창호가 세운 대성학교는 이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례로 들 수 있다. 이에 버금가는 것으로 오산학교, 보창학교가 있다. 대성학교를 통해 안창호는 지식 계발뿐만 아니라 애국주의와 건전한 인격의 양성을 강조하였다. 애국주의를 통해 국가의식을 고취하였던 것이다. 새로운 교육을 받은 새 세대의 역량으로 독립을 쟁취하겠다는 논리인 것이다. 신민회가 국가의식과 국민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한 사업 중에서 가장 성공한 영역이 교육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신민회가 교육을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자 했던 것은 민의 개혁이었다. 안창호는 신민, 신채호는 신국민이라고 표현했지만 이는 모두 근대적 의미의 시민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신민회는 신민 또는 신국민, 즉 시민 형성을 통해 독립된 국가로 나아가고자 했다. 적자생존의 냉엄하고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가 간 경쟁에서 승리해야 했다. 국가 간 경쟁을 수행하는 실질적인 주체는 결국 국민이고 이러한 경쟁 주체로서 국민을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 국가 간 생존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신민회가 신국민을 형성해야 독립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고 본 이론적 기저에는 “생존경쟁”이라는 진화론이 자리 잡고 있었다.

신민회의 주요 구성분자들을 살펴보면 서구근대 시민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다. 중산시민층과 개화된 신지식인층들로서 과거 독립협회 시절 만민공동회 활동을 하던 청년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들이 주도하는 신민회가 시민형성에 관심을 갖는 것은 역사적 맥락을 갖고 있는 것으로 당연한 결과였다.

신민회의 “민”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을까? 신민회의 민은 자유민주주의적 개인과 인민민주주의적인 계급으로 분화하기 이전단계의 복합적인 개념이었다. 신민회의 “민” 단계에서는 자유민주주의적 요소와 인민민주주의적인 요소가 혼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신민회의 “민”은 분명히 국가가 주도하여 형성한 국민은 아니었다.

민간사회운동단체인 신민회가 주도한 새 국민운동의 결과 나타날 민은 자유민주주의적 요소라 할 수 있는 자유와 인민민주주의적 요소라 할 수 있는 평등을 모두 중시하였지 이 중에 어느 하나에 더 방점을 찍지는 않고 있다.

시민형성 우선론에 입각한 신민회의 독립론에 대해서 윤치호, 안창호, 신채호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 독립을 해야 진정한 의미의 시민이 형성될 수 있다는 발상은 현대에서도 주목할 만한 논리이다. 근대적 의미의 시민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주권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주권의 담지자인 시민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국민주권 사상에 입각한 공화제 국가건설이 전제조건이다.

시민형성이 먼저나 국가건설이 먼저나 하는 질문은 신민회에 있어서는 같은 의미일 수가 있다. 신민회에 있어서 시민형성과 국가건설은 두 개의 서로 다른 과제가 아니라 독립이라는 하나의 과제의 서로 다른 면이었을 뿐이기 때문이다. 시민형성을 위해서는 독립된 주권국가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권을 상실한 당시는 시민이 형성될 수 없는 것이다. 시민을 형성하기 위해서도 독립은 필요한 것이 되었다. 시민형성 우선론은 독립 우선론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논리를 갖고 있다.

V. 결론

신민회가 독립을 목표로 했을 때 구상했던 국가체제는 공화제였다. 신민회 운동의 궁극적인 목표인 공화제 독립국가 건설은 좌절되었다. 신민회의 활동이 좌절로 끝났지만 그 사상적 맥락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신민회는 독립협회 이래 근대 민족국가 건설의 이상적인 정치체제로 제기된 공화제를 사상적 근간으로 삼아 활동했다. 신민회의 사상적 족적은 3·1운동 이후 각 운동단체들이 독립국가의 정체로 공화제를 수용하게 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 것이다. 좀더 시야를 넓히면 임시정부를 거쳐 대한민국이 공화국으로 탄생하게 되는 길목에는 신민회의 새 나라 운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조항의 역사적 뿌리는 임시정부와 3·1운동뿐만 아니라 신민회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신민회는 당시의 애국계몽단체들이 주장하던 자강독립론에 더하여 선독립론을 발전시켰다. 신민회가 처음부터 선독립론을 주장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초기에는 선실력배양 후독립론의 입장을 견지하였다. 1908년경까지는 대체로 선실력양성론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선실력양성론을 비판하며 독립과 실력배양의 병행을 주장하게 되었고, 마침내 이를 완전히 극복하여 선독립 후실력양성론의 입장으로 변화해 갔다. 이 변화의 계기는 신민회가 시도했던 경제적 실력배양운동이 처참하게 실패한데 있었다.

신민회의 사상적 지주는 발기인 안창호, 회장 윤치호, 그리고 신채호였다. 이들 각각의 사상적 특성에 따라 노선의 변화·발전이 있었다. 윤치호는 신민회의 교육과 계몽을 통한 실력양성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지만 독립군 기지를 통한 국권회복운동을 강력하게 지지하지는 않았다. 안창호는 기회와 실력을 동시에 강조하는 입장이었다. 실력을 길러 기회를 만들어가고 기회가 만들어지면 그동안 준비한 실력을 발휘하여 적극적으로 독립을 쟁취하자는 입장이다. 특히 실력양성을 자력으로 해야 한다는 자력적 실력양성론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안창호의 노선이 현실 속에서 철저하게 좌절을 겪고 자력적 실력양성을 하기 위해서도 독립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신채호는 적극적인 무장투쟁을 통해 국권을 회복하자는 입장에 서게 된다. 신채호는 실력양성이 있는 후에 국가독립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독립이 부강의 전제조건이 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민회는 독립군기지 건설도 추진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신민회의 국가건설노선은 초기 수용했던 자강독립론을 극복하고 선독립론으로 발전하였다.

신민회는 제국주의를 비판하였다. 그러나 신민회가 지향했던 부국강병의 최종 형태는 강자가 되는 것이었다. 제국주의 침략을 비판적으로 보았지만 강국이 됨으로써 독립을 할 수 있고 독립을 하는 것도 강국이 되기 위해서라는 이율배반적인 논리를 극복하기 어려웠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논리를 갖고 제국주의 아래서 제국주의를 극복하고 식민지 사회의 변동과 근대화의 문제를 이끌어 가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신민회는 이상적인 국가상으로 공화제를 지향하였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신민회가 공화제를 지향하며 신민, 신국민,

즉 근대적 의미의 시민의 역할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평가받을 가치가 있다. 신민의 탄생을 통해 당시 한국이 처한 위기를 극복할 실마리를 찾고자 했다. 신민회는 시민의 주권의식이 부족하여 국가의 위기가 왔다고 진단하고 여기서 처방을 구했다. 신민회의 처방은 당연히 국민주권 사상에 바탕을 둔 공화제 국가건설로 모아질 수밖에 없었다.

신민회의 처방은 단기적으로는 실패했지만 신민회의 처방은 옳았기 때문에 이후 한민족의 근대적 국가건설 운동은 민주공화제를 향하여 매진했고 대한민국은 공화제 국가로 출발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제를 채택하는데 아무런 이견이 없었고 이후 비교적 성공적으로 자리 잡게 되는 역사적 뿌리가 3·1운동, 임시정부 그리고 신민회, 나아가 독립협회에서 한결같이 주장되었던 공화제에서 연원한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참고문헌

《대한매일신보》.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1~5』.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65~1969.

김도형, 『대한제국기의 정치사상 연구』. 서울: 지식산업사, 1994.

김명구, 「한말·일제강점 초기 신채호의 민족주의 사상」. 『단체 신채호의 현대적 조명』. 서울: 도서출판 다운샘, 2003.

김용미, 「신민회의 국권회복운동과 정치사상」.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金淸壽, 「신민회 연구: 조직과 활동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단체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개정판 단체 신채호 전집: 상중하 별집』. 서울: 형설출판사, 1987.

단체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편), 『단체 신채호와 민족사관』. 서울: 형설출판사, 1986.

대전대학교 지역협력연구원(역음), 『단체 신채호의 현대적 조명』. 대전: 도서출판 다운샘, 2003.

도산기념사업회, 『속 도산안창호』. 서울: 도산기념사업회, 1954.

박만규, 「한말 안창호의 근대국민 형성론과 그 성격」. 『전남사학』 11집, 1997, 429~456쪽.

박찬승, 「한말 자강운동론의 각 계열과 그 성격」. 『한국사연구』 68, 1990, 81~140쪽.

박찬승, 『한국근대정치사상사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1992.

신복룡, 「신채호의 민족주의」. 『한국의 정치사상가』. 서울: 집문당, 1999.

- 신용하, 「신민회의 창건과 국권회복운동(상·하)」. 『한국학보』 8집·9집, 1977.
- 신용하, 「신체호의 초기민족주의사관과 후기민족주의사관」. 『한국근대사회사상사연구』. 서울: 일지사, 1987.
- 신용하, 「신민회와 대한매일신보의 민족운동」. 『산운사학』 4, 1990, 55~118쪽.
- 신일철, 『신체호의 역사사상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81.
- 신체호, 『단재 신체호전집』. 서울: 형설출판사, 1977.
- 신체호, 「20세기 新國民」. 《대한매일신보》 1910년 2월 22일~3월 3일자.
- 안병직, 「단재 신체호의 민족주의」. 『창작과 비평』.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73, 827~845쪽.
- 안창호, 『안창호논설집』. 서울: 을유문화사, 1973.
- 안헬렌, 「도산과의 일생」. 《동아일보》 1963년 3월 15일자.
- 양재혁, 「서구문화의 영향과 전통유교가치관의 변화: 신체호와 신국민론」. 『동양사상과 마르크시즘』. 서울: 일월서각, 1987.
- 원의상, 「신흥무관학교」, 《신동아》 1969년 6월호, 236~245쪽.
- 윤경로, 『105인 사건과 신민회 연구』. 서울: 일지사, 1990.
- 윤대원, 「한말 일제 초기 정세론의 논의 과정과 민주공화제의 수용」. 『중국현대사연구』 제21집, 2001, 53~75쪽.
- 윤치호, 『윤치호 일기: 1916~1943』. 서울: 역사비평사, 2002.
- 이광린, 『한국근대정치사연구』. 서울: 사계절, 1984.
- 이광수, 『도산안창호』. 서울: 대성문화사, 1959.
- 이광수, 「규모의 인 윤치호씨」. 『이광수전집』 17권. 서울: 삼중당, 1962.
- 이중은, 「유길준의 국가건설사상」. 『한국정치학회보』 38집 1호, 2004, 27~48쪽.
- 조동걸, 『한국민족주의의 성립과 독립운동사연구』. 서울: 지식산업사, 1989.
- 朱耀翰, 『安島山 全書』. 서울: 三中堂, 1963.
- 최형익, 「한국에서 근대 민주주의의 기원」. 『정신문화연구』 제27권 3호, 2004, 183~209쪽.
- 최홍규, 『신체호의 민족주의사상: 생애와 사상』. 서울: 형설출판사, 1986.
- 한홍수, 「독립협회 회보의 내용분석」. 『사회과학논집』 제6집,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73, 17~55쪽.
- 홍사단, 『도산안창호』. 서울: 홍사단출판부, 1983.
- Spragens, Thomas Arthur Jr. *Understanding Political Theory*. New York: St. Marin's Press. 李鍾殷(역), 『현대 정치이론의 이해』. 서울: 나남, 1991.

국 문 요 약

이 연구는 신민회가 국권상실의 위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진단하였으며, 그 극복 방안으로 내놓은 처방이 무엇이었는지를 추적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신민회는 근대의 길목에서 생성·소멸된 많은 국가건설 사상의 작은 저수지였다. 신민회가 독립을 목표로 했을 때 구상했던 국가체제는 공화제였다. 공화제는 독립협회 이래 근대 민족국가 건설의 이상적인 정치체제로 제기된 것이다. 신민회 운동의 궁극적인 목표인 공화제 독립국가 건설은 좌절되었다. 신민회의 활동이 좌절로 끝났지만 그 사상적 맥락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신민회의 사상적 족적은 3·1운동 이후 각 운동단체들이 독립국가의 정체로 공화제를 수용하게 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 것이다. 좀 더 시야를 넓히면 임시정부를 거쳐 대한민국이 공화국으로 탄생하게 되는 길목에는 신민회의 새나라 운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조항의 역사적 뿌리는 임시정부와 3·1운동뿐만 아니라 신민회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 투고일 : 2006. 1. 2.

● 심사완료일 : 2006. 3. 2.

● 주제어(keyword) : 신민회(Nwe People Society), 국가건설(Thoughts of State Building), 공화제(a Republic), 신채호(Shin Chae-Ho), 안창호(Ahn Chang-Ho)